

고흥군,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 안전점검 실시

해안가 추락·인파 밀집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안전한 축제 개최



고흥군과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축제장 현장 안전점검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봉래면 나로도연안 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5일 행사장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흥군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해 행사장 주요 시설과 관람객 동선 등을 살피며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축제장이 나로도항 인근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주무대 뒤편 등 해안가 추락 위험지역의 안전선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접근 통제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불꽃쇼와 드론쇼 진행 시 관람객 밀집에 대비해 행사 전후 인파 이동 동선과 관람구역을 확인하고, 부두와 선박 주변 등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 및 현장 안내 대책을 점검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 지역자활센터 나눔 바자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14일 보성지역자활센터에서 '쓰임은 다시, 행복은 두 배!'를 주제로 나눔 바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보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한호남)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을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물품의 재사용과 나눔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주민들은 물품 구매와 후원을 통해 나눔에 동참했다. 센터는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과 후원금을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을 소개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

한편, 보성지역자활센터는 보성군으로부터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 누적 이용객 17만명 돌파

해남군 청소년들의 대표적 여가·문화 전용 공간인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가 누적 이용객 17만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총 이용객 17만 7,571명으로, 이중 초·중등 청소년이 85% 이상을 차지하며, 관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머무르는 필수 '아이스티'이자 문화 놀이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문을 연 해남군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오랜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건물의 1층에는 작은 영화관인 '해남시네마'가 위치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불러모으며,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지역 청소년이라면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 윤림산방서 가을 문화장터 운영

진도군이 남종화의 산실인 윤림산방에서 국악 공연과 지역 작가 작품, 진도의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윤림 일요장터(SUNDAY 마켓)'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8일과 25일, 11월 1일과 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윤림 일요장터는 진도의 문화예술과 지역 상품을 함께 만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상품 구매를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국악 공연과 국악 체험, 진도의 먹거리와 흥주 체험, 감성 장터인 폴리마켓 등으로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의 맛과 이야기를 접하며 취향에 맞는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이가영 기자

장흥, 군정조정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

장흥군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위촉직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당연직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흥군은 이번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교육, 지역사회 활동, 지방의정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42억 투입 28병상 규모 '인공 신장실' 신축

내년 4월 완공 목표 추진,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완도군, 인공 신장실 신축 사업 추진(조감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 신장실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2억 4천 2백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9천 2백만 원과 군비 7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인공 신장실은 완도읍 가용리 산 194-1번지 일원에 신축되며 지상 2층, 연면적 466.15㎡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홀과 물탱크, 펌프실, 의료 가스 시설 등과 2층에는 28병상 규모의 혈액 투석실(B형 간염 보균자 전용 포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공 신장실이 조성되면 혈액투석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안정

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초 2022년부터 추진됐던 본 사업은 시공사의 폐업과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지연됐으나 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선금 및 계약 보증 보증을 통해 사업비 회수 후 군비 손실 없이 10월 재착공했다.

김신 군수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공 신장실 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사업 지연 과정에서 확보한 행정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공사 추진과 의료시설 조기 완공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